

“수질 개선·친환경 개발엔 의견 없어요” 광주-전남 ‘영산강 공조’

전남도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서 광주시와 의견이 없고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공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영철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영산강을 깨끗이 만들자는 것에 대해 전남도와 광주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박준영 전남지사 당선자가 영산강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광주시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자 입장표명을

통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

송 실장은 “영산강 사업 추진의 방법과 속도에 있어 양 시도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차이점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사업의 중점을 수질개선에 두느냐, 유량유지에 두느냐 등의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차이점은 문제될 만한 것은 아니며 양 시도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강운태 광주

시장 당선자가 강하게 주장했던 수질개선 사업 분야의 예산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환경기초시설과 생태하천 복원, 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 사업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전체사업비의 약 10% 정도인 3천475억 원 규모로 이를 더욱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산강 사업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광주지역 사업 규모가 그

크지 않지만 영산강 발원지 인근 인데다 오염원이 집중돼 있는 만큼 광주시와 적극적인 정책공조를 벌이기로 했다.

송 실장은 “광주시가 요구하고 있는 수질개선이나 축산폐수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사업은 영산강 사업시작 이전에도 이미 하고 있던 사업들로 큰 틀에서는 양 시도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적극적으로 광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초등생 11월부터 전원 무상급식”

장희국 시교육감 당선자… 중학생은 내년에

광주지역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학생 무상급식도 2011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8일 “오는 11월 취임과 동시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중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당선자는 “예상재원 600억원은 광주시와 협의해 확보하고, 여의치 않으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불필요한 예산절감 등을 통해 무상급식으로 투입되는 재원을 확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당선자는 다만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고교생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고, 초·중학생 실시 이후 단계적으로

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117억 원을 들어 초등학교 1~2학년의 무상급식을 실시종이며,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되면 연간 총 36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는 240억여원의 추가 예산이, 고교생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연간 총 10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학 시간강사 임금 전임강사 수준으로

사통위, 4대보험 가입…‘고용안정’ 법제화도

앞으로 대학시간강사도 전임수준으로 임금이 올라간다.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한국 대학 강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보도한 광주일보가 지적(5월 27일 1·6면)과 관련,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가 대책을 내놓았다.

사회통합위원회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전제회의에서 대학시간강사 문제와 관련, ▲‘전업시간강사’를 법제화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시간 강사의 임금 수준을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대 사회보험 가입과 연구비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교육계의 고질적인 과제인 대학 시간 강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전문가 6명이 참가하는 ‘대학 시간강사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 대책을 검토해왔다.

대책 소위원회는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임금수준을 현재 전임강사의 4분의 1 수준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체희증기자 chae@kwangju.co.kr

함평 다이너스티 C·C 사원 모집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친환경 양잔디 골프장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에서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요강
모집부분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로스관리 남 0명 굴삭기운전 및 기타 경력, 신입
식음료팀 남, 여 0명 조리사, 웨이터, 주부사원(30대)
시설팀 남 0명 전기 전기산업기사(상)

2. 채출서류
①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3. 복지제도
•기숙사 제공 / 일3식 제공 / 4대보험

•년차휴가 / 주 52주 휴무제공
•하계 및 동계휴가 / 교통비지원등 기타

4. 접수방법
•우편 접수 : 전남 함평군 회고면 곡천리

•전화 접수 : 061-320-7710
•e-mail 접수 : mannewang@hanmail.net
•국외 접수 : 00-320-7710(한국일보)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믿음 공인중개사 T. 971-4911 H. 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동이 빌딩 1층)

■첨단지구

상가 임대 : 60m 대로변 2,3층 450평(분할가능)

【관련업종 : 병원, 사무실, 학원 기타】

첨단지역 번화가이며 1층에 옷매장들이 형성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학원,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450평(조립, 제조 회사 가능) 주차대수 30대

■공장 :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산단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첨단: 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낙면, 진원면, 대치, 수복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첨단지구 : 상업지역지, 모텔부지, 상가건물 모텔, 무인텔, 매도(다수보유)

■첨단지구 : 상기임대, 읍식점, 음악홀, 레스토랑(다수보유), 1층번화가; (롯데장 약 60평 임대)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 아파트 후순위 대출 (시세의 90%)
- 임대아파트 특별대출 (임대금액의 80%)

주택·논밭·임대나대지 추가대출

- 최저금리
- 분할 상환 가능

금융(부동산 투자) 고소득 안내

- 사업장 고정직(퇴직자우대) 이사 초빙

안전한 금융투자 (부동산 담보) 사업안내

- 1인투자→월이자 150만원~250만원
- 2인투자→월이자 300만원~350만원
- 1천투자→월이자 25만원
- 3천투자→월이자 70만원

• 법무사, 업무대행 철저관리분석

- 동록번호 서구 제 482호 금리연 24~49%

한국금융투자개발

374-2760

‘축’

엘도라도 연복교 개통

“특급 펜션부지”

-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시고 할 수 없는 장애가 생기는 분

-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고 싶은 분

- 원성이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 역술원 아님. 상담료 없음)

- 부담없이 차 한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MB 4대강사업 중단 촉구 입장발표 기자회견

민심은 4대강사업 반대다. 영산강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일시 | 2010. 6. 8.(화) 11시 · 장소 | 광주YMCA 무진관 · 주최 |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4대강 사업 중단하라”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8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장 5억~6억·전남지사 11억~13억 썼다

지방선거 후보 비용 지출

교육감은 제한액 90%선

6·2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들은 선거비용을 비교적 절약해 사용한 반면, 시·도교육감 후보들은 법정 제한액에 육박하는 선거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시장=민주당 박운영 전남지사는 선거비용 제한액(14억2000만원)의 80%를 약간超은 11억원 가량을 지출했다. 박 지사는 측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밝히지 않고, 유세차량 임대와 현수막 제작 등에 선거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는 총 6억원,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는 총 2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 전남지사=전남도 교육감은 선거비용 한도액(14억2000만원)으로 대부분 후보자가 80~90%를 사용했다. 장만체 당선자는 2억1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각 시·군에 1대씩 투입한 유세차량 운영비와 선거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6억원 가량을 사용했다.

◇ 전남도 교육감=전남지역은 선거비용 한도액(14억2000만원)으로 대부분 후보자가 80~90%를 사용했다. 장만체 당선자는 2억1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각 시·군에 1대씩 투입한 유세차량 운영비와 선거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6억원 가량을 사용했다.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는 12억~13억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거비용을 아끼려고 현수막 철거를 ‘아름다운 가게’에 의뢰했다.

◇ 광주시 교육감=장희국 광주시 교육감 당선자는 2000만원을 모금했

다. 선거기간 동안 유세차량 운영비 2억5000만원, 선거운동원 인건비 1억1000만원, 법정 공보물·현수막 제작비 2억여원 등 모두 6억7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짐작됐다.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인 7억원에 가까웠다.

안순일 후보는 1억6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유세차량 운영비와 인건비, 광고·홍보·선전물 제작비 등으로 6억원 가량을 사용했다.

◇ 전남도 교육감=전남지역은 선거비용 한도액(14억2000만원)으로 대부분 후보자가 80~90%를 사용했다. 장만체 당선자는 2억1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각 시·군에 1대씩 투입한 유세차량 운영비와 선거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6억원 가량을 사용했다.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는 12억~13억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거비용을 아끼려고 현수막 철거를 ‘아름다운 가게’에 의뢰했다.

◇ 광주시 교육감=장희국 광주시 교육감 당선자는 2000만원을 모금했

정급 연봉제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처럼 선거 출마로 절반이 월급 넘는 기간 동안 자리를 비워도 일부 수당만 제외될 뿐 본봉은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은 무투표 당선된 단체장뿐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다른 현직 단체장들도 마찬가지다.

선거운동을 하느라 직무를 보지 못했으면서도 평상시 월급여의 대부분을 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방식의 단체장급여 지급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희기자 lsh@korea.com
/부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고접수안내

• (062) 227-9600
• FAX:(062)227-9500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10년 5월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본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그 채권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0년 6월 9일
한인건설 주식회사
광주 동구 수기동 23-2
• 062-234-0016
• 청 산 인 김 윤 하